

한우농가에 도움되는 세제 혜택



1 사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 **부업규모축산** 및 **농가부업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
- 비과세 금액: 부업규모축산 + 농가부업(3,000만 원)

■ 부업규모축산

- 한우 사육두수 50마리 규모 이하까지 소득세는 비과세
- 성축을 기준으로 하며, 육성우는 두 마리를 한 마리로 간주
- 사육두수는 매월 말 기준의 사육두수 평균으로 함
- 두 종류 이상의 가축 사육 시 가축별로 각각 계산 * 한우 50마리, 젓소 50마리, 돼지 700마리 규모라면 비과세 가능
- 만약 한우 60마리를 사육한다면 초과분 10마리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됨



농가부업?

- 부업규모축산 외에 농가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그 종류는 **고공품 제조,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어로** · 양어가 있음
- 예를 들어,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 농가부업 사업자등록을 하면 농어촌 민박 허가증을 줌

2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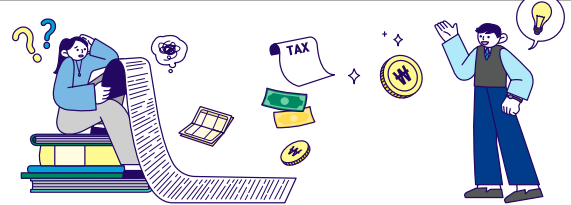
-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의 5/31까지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
- 작물재배업 및 농업인이 농업 이외의 부업으로 영위하는 일정 규모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비과세 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중소기업 중 감면 업종(축산업, 작물재배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
- 개인 및 법인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
- 요건에 따라 최소 **5~30%까지 감면 가능**
- 감면 한도액은 최대 1억 원

■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분	6%
1,2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분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분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분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분	40%
5억 원 초과분	42%



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요건

-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판 가격)에서 취득가액(산 가격) 및 필요경비 등을 차감한 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부
-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음

■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

- 축사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소유 기간과 무관) 축사용지 양도 시 100% 감면
- 감면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1억 원, 5년간 합산 2억 원까지 가능

* 올해 12월 말에 A농장을 팔고, 내년 1월 초 B 농장을 판매하더라도 각각 해별로 1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음

■ 양도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분	6%
1,2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분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분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분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분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분	40%
5억 원 초과분	42%

꼭 알아주세요!

- 폐업으로 인한 양도 시에만 감면 적용
- 8년간 직접 종사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축사가 보이는 항공사진(시군구청에 요청) 또는 해당 기간 내 정기적인 사료 및 가자재 구매 영수증을 증빙하기도 함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우자조금

2023년 7월호 Vol.213



한우자조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으면 더욱 편리하게 각종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

후계 한우인 육성이 중요하다

선도농가 탐방

“위기 극복? 경영 마인드 갖춰 미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우사 소득의 이해와 요령

기획

한우산업 미래
후계자에 달렸다





표지이야기

농촌을 지키며 대를 이어 한우산업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진영진 대표는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사료비 등 생산비가 지속 인상됨에 따라 미래를 대비하고자 2년 전부터 사육두수를 점차 줄이면서 태양광 설치 등 새로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지금의 한우파동을 극복하고 있다.

2023년 7월호 통권 제213호

발행일 2023년 7월 14일

발행인 이동환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회관 3층 교육조사부

전화 02-522-3607 팩스 02-522-3605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04 기획

한우산업 미래 후계자에 달렸다
후계 한우인 육성이 중요하다

08 선도농가 탐방

“위기 극복? 경영 마인드 갖춰
미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

경남 사천 ‘대신2농장’

12 한우자조금이 만난 사람

“한우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한우요리
적극 선보일 것”

레스토랑 젤렌 미카엘 셰프

14 농장관리 체크포인트

우사 소독의 이해와 요령

16 포커스

MZ세대 마음 사로잡는 다양한 마케팅 펼쳐

18 방송에서 만난 한우

풍부한 영양소로 우리 건강 지키는 ‘한우’

19 이달의 소식

① ‘말레이시아 한우수출 첫 선적 기념행사’

② 음수조에 ‘쓸개즙’ 살포…피해 농가 잇따라

③ 한우 원료육 차액지원 사업 통한 제품 연달아 출시

④ 현대그린푸드, 단체 급식 사업장에 한우 활용한 식단 제공

⑤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에 농가 참여 몰려

⑥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⑦ ‘방문형 OPU 수정란 생산체계 확립 및 산업화 연구’ 결과 발표

⑧ ‘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24 한우고기 유통동향

25 한우 수급시황

26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 한우

27 독자마당



한우산업 미래 후계자에 달렸다



한우산업에 후계자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현장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의 연령이 50~60대가 젊은 축에 들 정도로 한우산업의 고령화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한우산업은 최근 몇 년간 소규모농가는 줄어들고, 기존 전업농가들은 규모를 확대하는 등 대규모농가 위주로의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한우산업에 있어 대규모 한우사육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농장은 대를 이어 한우를 사육하는 후계농이 있는 반면, 소규모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의 경우에는 대를 이어 사육하겠다고 나서는 후계농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장에 후계자가 없다보면 냉정히 말해 투자나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한우산업에 있어 후계자 육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전문가 기고를 통해 알아봤다.



공 홍 식 교수
〈한경대학교 응용생명공학(경기농업마이스터 학장)〉

후계 한우인 육성이 중요하다

소규모농가 폐업 갈수록 늘어나

통계청이 발표한 가축동향 조사 결과 2022년 12월 전국 한우농가 수는 8만7,852호로 전년 대비 약 2,000농가가 감소했고 2023년 1분기는 8만6,861호로 더욱 감소됐다.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우비육우 100kg당 생산비는 전년도에 비해 2.13% 상승한 129만3,000원으로 나타났으며, 한 마리당 순수익은 -68만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2년 전부터 진행된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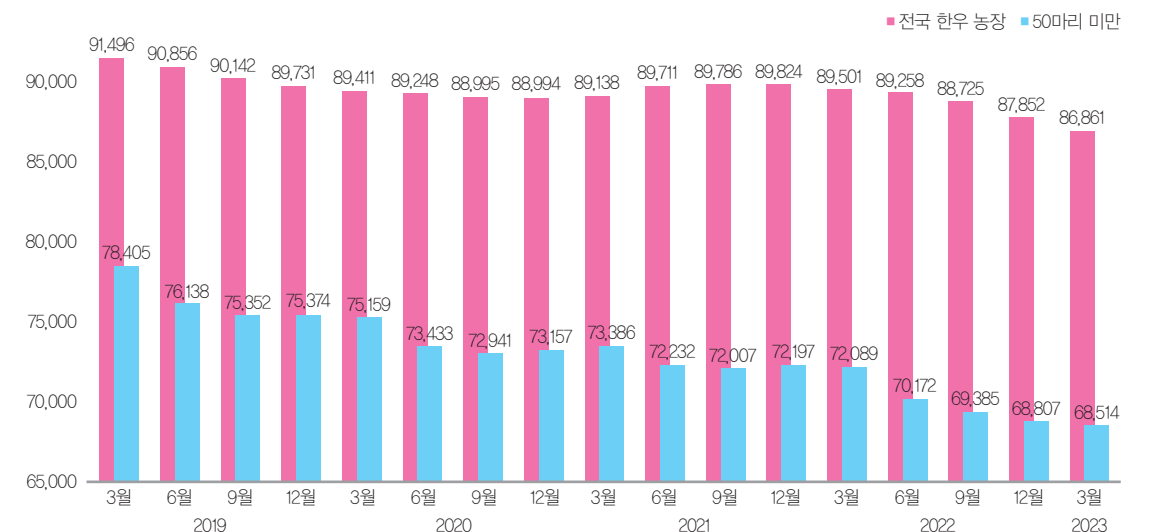
또 올해 한우 송아지 생산비 및 수익성 추정(전국 한우협회)에 따르면 2023년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하기 위한 경영비는 369만원으로 추정됐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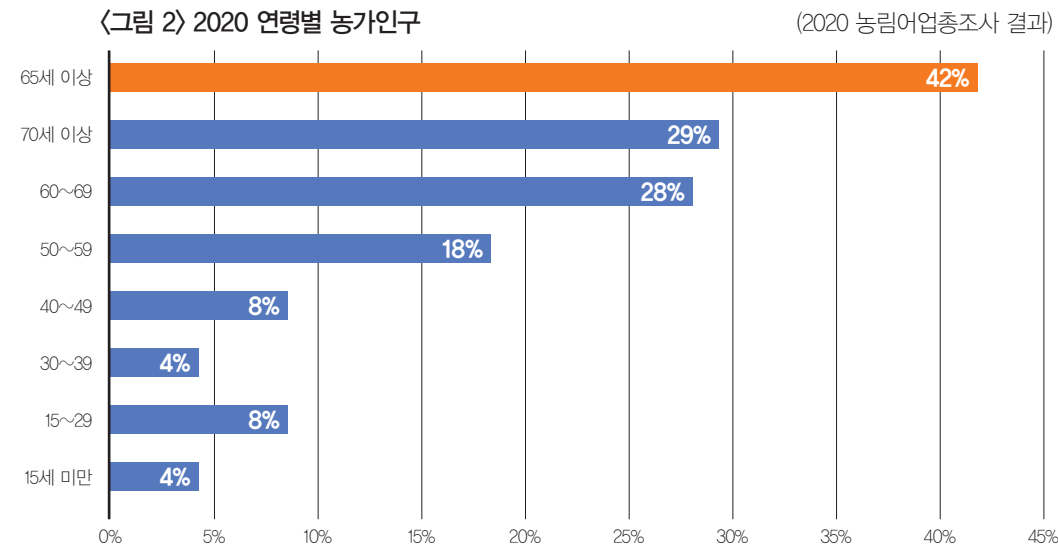
난 1월 송아지 평균가격은 246만원이며, 경영비가 369만원일 경우 123만원의 소득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수송아지일 경우이며, 가격이 낮은 암송아지의 경우에는 더욱 큰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이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한우를 5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소규모농가 수도 2021년도에 비해 2022년 4.7% 감소했으며,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정 규모이상의 농가들은 어느 정도 사료값 상승, 한우가격 하락 등의 문제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대부분의 한우농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지금 회전율이 낮아 폐업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소규모농가의 후계자가 농가를 이어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전국적으로 소규모농가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그림 1〉 전국 한우농가 및 소규모농가(50두 미만 사육) 현황

(통계청)





축산농가 60대 이상 63%

통계청의 '2020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연령별 농가인구 비중은 50대 18.3%, 60대 27.7%, 70대 이상 29.3%로 전체 농가인구 중 60대 이상 57.0%로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축산농가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60대 이상이 63%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축산업이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농가 고령화 문제는 결국 축산물 생산성의 저하를 야기하며, 축산물 경쟁력 약화문제로 번질 수 있다. 경쟁력을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젊은 인력의 유입이 필요 요소지만, 앞선 문제들로 인해 상당수 축산농가들의 2세들이 농장을 이어받지 않고 있어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다.

또 2세들의 진입뿐만 아니라 새롭게 축산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농들도 다양한 진입 장벽이 존재하여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유지될 경우 전반적인 축산업의 기반이 흔들려 축산물 자급률 하락 문제까지 번질 수 있어 축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의 과도한 축산업 통제

앞선 문제의 해결방법인 청년 후계농 육성은 국내 축산업 기반의 견고화를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 인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축산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후계농의 축산업 진입에 대한 문제에는 지자체의 과도한 축산업 통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축사를 이전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의 동의서와 건축허가 등을 신청

하지만 지자체에서 불허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를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욱 강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통제들로 인해 청년 후계농의 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 주민 민원도 후계농이 진입하는데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농장주가 축사 증축을 추진할 경우 주민 반대라는 벽이 존재하며, 축사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농가에서는 '자식이 축산업에 종사하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권유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곳이 많다.

후계농 육성 지원과 정책 제정 및 보완 필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 후계농 육성을 위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 각 시·도 지자체와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에서는 청년 CEO 육성과정과 귀촌·귀농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수도 없이 진행하고 있으나, 단 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품

목에 한정되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축산의 경우 최소한 4~6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는 축산농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소규모농가의 이익 개선을 위한 최신기술 도입을 위해 유전체 분석기술 활용과 ICT 장비들의 보급을 통한 한우농가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에서 2020년 한우농장 경영자와 후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청년 후계농의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75.6%가 '영농자금 지원', 그 뒤로 72.0%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완화', 48.5% '농지 및 주택 등의 승계 시 세금 감면'으로 나타났다.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상담지원으로는 '축산기술 상담'이 8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청년후계농이 필요한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제정·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는 미래의 지속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청년 후계농 육성 및 투자에 손발을 들고 나서야 한다.





경남 사천 ‘대신 2농장’

“위기 극복? 경영 마인드 갖춰 미래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

암소개량 중요성 일찍부터 눈떠
거세우 1⁺⁺ 출현율 65% 기록
사육두수 감축...분산투자 실시

◀ 진영진 대표.

잔뼈 굵은 베테랑 한우인

최근 한우산업은 농촌현장의 고령화와 이를 이어갈 후계자의 부재로 인해 인력난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촌을 지키며 대를 이어 한우산업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우농가가 있다.

경남 사천시 곤양면에서 현재 번식우 75두, 거세우 75두 등 총 150두의 한우를 일관사육하고 있는 진영진 대신2농장 대표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낙농업을 하는 부친의 영향으로 일찍이 축산업에 뛰어든 진영진 대표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버지 밑에서 낙농업을 시작했다. 이후 1천400만원을 대출받아 아버지로부터 젖소 7두를 구입하여 자신만의 농장을 일궈나가며 당시 일 650kg이라는 적지 않은 유량을 생산해 냈음에도 불구하고 진 대표에게 주어진 쿼터는 300kg이었다.

특히 진 대표는 선천적인 천식으로 인해 착유 작업 중 쇼크로 쓰러져 ‘이래서는 목장 경영이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해 2001년 암소 3두를 입식하며 한우사육에 뛰어들었다. 이제는 22여년간 현장에서 잔

뼈가 굵은 베테랑 선도농가이자 노력과 열정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며 인생의 행복을 키워나가고 있는 젊은 한우인으로 유명하다.

등급판정사 조언으로 개량방향 설정

2001년 진주산업대 동물생명과학과에 재학하며 낮에는 한우사육에 매진하고 밤에는 학업에 매달린 진 대표가 한우사육에 있어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은 암소개량이었다. 젖소 사육을 통해 우량암소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

특히 진 대표는 낙농업을 하며 배운 개량을 한우에 접목해 간다면 한우개량이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한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에 올바른 개량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각종 교육을 들으며 공부하던 중 우연히 찾은 도축장에서 만난 등급판정사가 ‘앞으로의 등급체계는 근내지방과 등심단면적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건넨 조언덕분에 개량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암소개량에 임하고 있다.

철저한 기록관리는 기본

근내지방과 등심단면적 위주로 암소 개량을 하고 있는 진 대표는 개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기록관리를 통한 암소의 유전능력 분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밭이 좋아야 농작물이 잘 자라듯이 고품질 사료급여 등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최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송아지가 바탕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귀찮더라도 기본을 지키는 것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평소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해 기록하고, 이 기록지를 적극 활용하여 암소개량에 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진 대표가 정성스레 사육하고 있는 소.

특히 암소의 유전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후대검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진 대표는 “무조건 유전능력이 뛰어난 정액을 선정하는 것보다 후대검정을 통해 암소의 부족한 유전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액을 선정하는 것이 암소개량의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진 대표는 또 인공수정 시술시 시스에 묻어 있는 피와 이물질, 분변 등은 수태율을 저하시키고 자궁내막염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1년 1산을 위해 어미 소 분만 후 약 한달 정도 지나면 자궁을 세척해주고 있다. 아울러 임신 감정이 확인된 암소를 제외한 모든 암소는 한 달에 2번 비타민, 미네랄 주사를 접종하고, 비타민 첨가제는 상시 급여하고 있다.

자가 TMR, 우회단백질 함량 높은 원료 사용

자가 TMR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진 대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원료선정이다.

그는 “위에서 분해되지 않는 우회단백질은 장에서 한 번 더 분해 흡수하기 때문에 우회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사료효율은 높되 단가는 낮추는 효과를 가져 온다”면서 “우회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표적

선도농가 탐방

인 원료는 주정박이다. 습 주정박은 대두박과 루핀에 비교해도 우수한 영양성분 함량을 갖고 있으며, 건 주정박은 단백질과 소맥피에 비해 단가는 조금 높지만 바이패스 단백질 함량이 뛰어나고 사료를 적게 먹어도 사료효율이 좋다”고 말했다.

이처럼 원료의 성분을 정확히 파악해 적소에 사용하면 같은 단가로도 2배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진 대표의 설명이다.

또 육질을 찰지게하고 백색의 경지방을 만들기 위해 비육후기 때는 맥강, 보리 등의 동계작물을 1일 사료 급여량의 15% 정도 급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진 대표는 거세우 출하 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약 95% 내외이며, 1⁺⁺ 출현율은 65%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태양광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

진 대표는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 550여두의 한우를 사육했으며, 엘리트 카우는 23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사육두수 증가로 인해 한우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과 사료비 등 생산비가 지속 인상됨에 따라 미래를 대비



▲ 진 대표는 농장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다.



▲ 조사료를 급여하며 소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진 대표.



▲ 진 대표가 자가TMR사료를 급여하고 있다.

하고자 2년 전부터 사육두수를 현재 규모까지 점차 줄이면서 태양광 설치 등 새로운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다.

그는 “2010년 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소값은 크게 하락하고 사료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하지만 한우사육을 포기할 수 없어 대출을 받으며 한우를 사육했는데, 어느덧 대출금이 4억원까지 늘어났다. 사육하고 있는 소와 축사 부지 등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대출금을 갚을 수 있을 정도였기에 낭떠러지에 서있는 기분이었다”며 당시의 상황을 회상

했다.

진 대표는 “결국 한우사육을 포기하고자 결정하고, 우사 계약까지 마쳤으나 매수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됐다”며 “이때 다른 지역의 선도농가로부터 ‘지금은 농장 경영이 매우 힘들겠지만 정액판매량, 생산두수, 공급(도축)물량, 수입물량 등을 보면 1~2년 내에 한우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다시 한우사육에 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당시 암소개량, 사양관리 등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어야 한우사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지금의 한우파동을 대비하고자 지난해부터 분산투자를 실시, 한우 출하대금을 우사 지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사용했다”고 했다.

이처럼 태양광을 통해 현재 매월 약 5~6천만원의 이익을 올리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진 대표는 “앞으로는 나의 한우사육 경험과 개량, 농장 경영 노하우 등을 후배 한우인들에게 공유하며 이들과 함께 한우산업을 지켜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대신2농장 전경.



대신2농장 사양관리 ‘꿀팁’

■ 개량 노하우

- 평소 하나하나 세심하게 관찰해 기록하고, 이 기록지 적극 활용
- 후대검정 통해 암소의 부족한 유전능력 보완해 줄 수 있는 정액 선정

■ 번식우 관리

- 어미 소 분만 후 약 한달 정도 지나면 자궁 세척
- 임신 감정이 확인된 암소 제외한 모든 암소 한 달에 2번 비타민·미네랄 주사 접종
- 비타민 첨가제는 상시 급여

※ 농장별로 사양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양관리 ‘꿀팁’은 참고 용도로 활용하세요.



레스토랑 젤렌 **미카엘 세프**

“한우 홍보대사로서 다양한 한우요리 적극 선보일 것”

스켄베초르바 등 한국식 불가리아 음식 큰 인기
소비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 개발 노력

홍보대사 위촉 매우 영광

“한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한우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손쉬운 레시피를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한우의 우수성과 건강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노력하겠다.”

레스토랑 젤렌 오너 셰프이자 냉장고를 부탁해, 수미네반찬, 닥터셰프 등 다양한 방송에 출연해 활동하고 있는 미카엘 세프는 최근 한우 요리 콘텐츠가 확대됨에 따라 한우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5월 24일 ‘2023년 한우 명예홍보대사’로 선정됐다.

지난 7월 12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레스토랑 젤렌에서 만난 미카엘 세프는 “축산, 요리, 의학, 식품영양, 인문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한우 명예홍보대사는 각 분야의 오피

니언 리더로서 한우의 우수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우소비 활성화 및 산업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제 한우 명예홍보대사인 만큼 외식업계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며 한우의 다양한 우수성을 최대한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우에 대한 관심 높아

불가리아 국적의 미카엘 세프는 2002년 한국으로 넘어와 2007년부터 서울 이태원에서 레스토랑 젤렌을 열고 한국식 불가리아 전통음식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다.

그중에서도 한우를 활용한 안심스테이크와 스켄베초르바(위로 만든 국)가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미카엘 세프는 “처음 한우고기를 봤을

때 기름(마블링)이 많아 ‘식재료로서 괜찮을까’라는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막상 한우고기로 요리해 맛을 보니 매우 뛰어났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한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서산, 홍천, 횡성 등 여러 지역의 한우농장을 방문하며 사료급여 등 농장체험도 자주 다녀왔다는 미카엘 세프. 그는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 애정을 갖고 소를 사육하는 한우농가분들의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러한 한우농가의 노력과 애정이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한우관련 축제에 참여해 유럽식 육회 등 한우 요리를 만들어 관람객에 선보였다. 앞으로도 한우 요리 홍보는 물론, 홍보대사로서 소비자들이 집에서 쉽게 한우를 이용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레시피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 필레미봉 한우 안심 스테이크



▲ 불가리아식 미트볼 한우 큐프테

◀ 미카엘 세프가 녹차와 한우를 활용해 다양한 요리를 만들고 있다.



우사 소독의 이해와 요령



김 의 형 수의연구사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소>



최근 국내에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이 다시 발생했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가고 있었던 예전의 악몽을 다시 떠올리게 했다.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청주, 증평 한우농장 10곳과 염소농장 1곳에서 발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살처분된 우제류는 소 1,510두와 염소 61두 등 총 1,571두에 달한다.

구제역은 빠른 대응조치로 발생 35일 만에 상황이 종료됐다. 이번 구제역 발생은 한우를 비롯한 축산 농가에서는 철저한 예방접종과 소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오늘은 구제역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 중 소독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소독의 종류에는 주로 열과 햇빛소독 등에 의한

물리적 소독과 소독약 사용에 의한 화학적 소독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가 소독약을 사용해 축사의 내·외부를 소독하는 방법은 화학적 소독에 해당한다. 이러한 소독약의 작용기전은 세균 등 병원성 미생물의 세포막을 변성시켜 세포내 성분을 유출시키든지 또는 세포내 단백질을 손상시켜 세포의 발육을 방해하거나, 미생물의 생존과 증식에 필요한 효소의 활성을 저해시키는 것이다.

소독약의 종류에는 산성제, 염기제, 산화제, 알데히드제 등이 있다. 산성제 소독약은 구연산이나 초산 등의 복합제제로 이뤄져 있으며 다른 소독약보다 사람과 가축에 안전하지만 가축의 배설물 등 유기물이 많이 있을 때에는 소독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염기제 소독약에는 탄산소다, 가성소다, 생석회 등이 있으며 축사와 가축의 배설물 등의 소독에 많이 이용한다. 피부와 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부식성이 강하여 차량 소독에는 적합하지 않다.

산화제 소독약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삼중염 등 복합염류가 있으며 축사내부, 축산기구, 차량소독에 적합하다.

알데히드제 소독약은 저농도 유기물이 있어도 소독효과가 유지되지만 포르말린 성분은 독성이 강하여 사람과 동물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축사 및 축산기구 소독에 사용한다.

소독약은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에 직접 접촉해 반응을 해야 소독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축사를 자주 소독한다고 할지라도 축사 내부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에 소독약이 접촉하여 반응하지 않는다면 병원성 미생물의 사멸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충분한 소독의 효과를 위해서는 축사의 가축을 밖으로 이동시키고 축사 바닥의 분뇨를 치운 후 바닥과 벽면, 축사 내부 시설물에서 소독약이 흐를 정도로 충분히 분무하고 소독약이 마른 후 축사 안으로 가축을 다시 이동한다.

소독약 과다 사용주의

농장입구 및 축사입구에는 사람의 발이나 자동차의 바퀴가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소독조를 설치하고 소독약이 유기물로 쉽게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 2~3회 소독약을 교체해 준다.

소독약은 설명서에 표시된 적정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농도가 높으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소독효과 향상보다는 소독약 과다 사용으로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소독약을 사용할 때는 한 종류의 소독약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고 다른 성분의 소독약으로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두 가지 소독약을 직접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소독약 성분이 서로 반응하여 소독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대부분의 소독약은 인체에 접촉할 경우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할 때는 마스크, 장갑, 보안경 등을 착용하여 눈이나 피부 호흡기에 소독약이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모든 질병은 발생 전 예방이 최선이며, 농장의 질병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독이 필수이다. 우리 농장의 한우를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철저하게 소독을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MZ세대 마음 사로잡는 다양한 마케팅 펼쳐

인스타그램 '갓생한우'·유튜브 '우(牛)리형'
MZ세대 공감 이끌어내며 젊은 취향 저격



각광받는 세계관 마케팅 진행

한우자조금은 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며 MZ세대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계관 마케팅의 일환으로 '갓생한우'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세계관'이란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세계 속에 여러 사건이나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설정을 말한다. 세계관 마케팅은 이 개념을 적용한 마케팅으로, 브랜드만의 세계관을 설정하여 소비자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최근 SNS상에서 MZ세대를 중심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MZ세대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부합하는 브랜드를 꼼꼼히 따져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또 디지털과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기 때문에 SNS를 기반으로 유통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비 주체로 부상하고 있어 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신선한 '세계관 마케팅'을 잘 활용한다면, 소비자에게 브랜드의 가치관이나 제품을 각인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한우 캐릭터 '한우랑'이 사회초년생이 된 설정으로 '지난 대학생활을 회상하는 모습', '회사에서 야유회를 즐기는 모습', '여름휴가를 준비하는 모습' 등을 보여주며 MZ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다.

한우농가 노력·정성 유쾌하게 담아

한우자조금은 최근 해병대 출신 개그맨 박경호와 함께 한우농가를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한우 정보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 '우(牛)리형'도 공개했다.

'우(牛)리형'은 한우농가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한우고기를 제공하기까지 사육과정에서의 들이는 노력과 정성을 보여주고 한우의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튜브 영상은 '무적 해병'으로 활약하고 있는 개그맨 박경호가 고된 한우농가의 일상을 손수 체험하는 모습을 유쾌하게 담아냈다.

첫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전남 해남군의 한우농가를 찾아 벼집 나르기, 사료주기, 송아지 제각 작업 등 다양한 농가 일을 체험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또 한우는 버려지는 농업 부산물을 사료로 섭취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역할도 한다는 정보도 실었다.

농장주는 대대로 내려온 자랑스러운 한우를 키워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것에 한우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한편, 세계관 마케팅을 활용한 '갓생한우'는 한우자조금 인스타그램에서, 무적 해병 박경호의 리얼 한우 농장 체험기 '우(牛)리형' 영상은 한우자조금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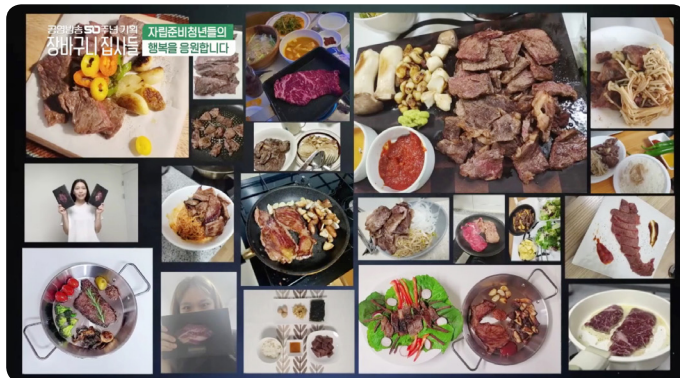


풍부한 영양소로 우리 건강 지키는 ‘한우’

6월 방송에서 만난 한우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한우고기의 근육세포 기능 개선 효과에 대한 우수성을 알렸다. 또 고단백질 정육부위를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으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한 한우고기도 후원하여 공익적 인식 제고에도 앞장섰다.



“한우농가가 청년들을 응원합니다!”



KBS1 <장바구니 집사들> 6월 16일

KBS 창립 50주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장바구니 집사들’ 프로그램에 한우농가들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보내준 특별한 응원이 전파를 탔다. 면역력에 좋고 영양소가 풍부한 한우 등심과 채끝 70인분을 전달하는 등 청년들의 자립을 응원하는 모습이 그려져 보는 이들로 하여금 훈훈함을 자아냈다.

JTBC <TV정보쇼 알짜왕> 6월 29일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 몸의 근육을 지키는데 있어 동물성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과 근육 세포 기능과 항산화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한우의 우수성이 소개됐다. 또한, 근육강화와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고단백 한우 식단으로 ‘한우 사태 수육’과 ‘한우 보쌈살 불고기 구이’ 레시피가 소개되어 단백질 보충에 탁월한 식단임을 알렸다.

단백질 보충에 탁월한 ‘한우’



1.

‘말레이시아 한우수출 첫 선적 기념행사’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행사 예정

할랄 시장에 한우고기 수출이 본격화됐다. 한우자조금은 농림축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지난 6월 29일 인천항에서 ‘말레이시아 한우수출 첫 선적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정식 수출에 앞서 지난 6월 8일, 한우 3마리를 시범적으로 우선 수출하여 운송, 검역·통관 등 전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한우를 먼저 시식해 본 현지 호텔과 식당의 요리사들은 한우고기 특유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정식 수출되는 한우 10마리는 현지 호텔과 식당에서 한우고기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 시식 행사를 개최해 한우가 생소한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에게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한우자조금은 향후 말레이시아 한우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현지박람회 참가 및 팝업스토어 개설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2.

음수조에 ‘쓸개즙’ 살포... 피해 농가 잇따라

지난 6월 20일 SBS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녕에 있는 한 한우농가가 지난 2월 kg당 200원을 더 주겠다는 중간 판매업자들의 말에 한우 137두를 판매키로 했는데, 이들이 농장을 다녀간 후부터 소의 살이 빠지고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농장에 설치돼 있는 CCTV 확인 결과, 이들은 음수조에 소 ‘쓸개즙’을 살포했다. 이에 소들은 쓴맛으로 인해 물과 사료섭취량이 저하돼 해당 농가는 두당 약 50~60kg이 감량되며 금액적으로 1억원 정도를 손해봤다. SBS뉴스 보도 이후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는데, 비슷한 피해를 봤다는 한우농가를 추가로 확인, 현재 경북·전북 등 총 8곳의 농장에 쓸개즙을 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우자조금은 중간 판매업자의 쓸개즙 살포와 관련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우농가에서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

한우 원료육 차액지원 사업 통한 제품 연달아 출시

한우 활용한 피자 출시...하반기 버거도 선보일 예정



한우 원료육 차액 지원 사업을 통해 한우 피자가 시장에 선보여진 가운데, 하반기에는 버거 등이 신규로 출시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은 지난 5월 한우 수급안정 및 적체된 정육 부위의 소비촉진을 위해 '한우 정육 원료육 차액지원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했다.

그 결과, 12개 업체가 선정되어 올해 총 2,017톤의 한우 정육(목심, 앞다리, 사태, 우둔, 설도 등)이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우자조금 원료육 지원 사업에 선정된 업체 중 하나인 A업체는 이 사업을 통해 한우 연양 불고기피자를 출시했으며, 하반기에는 또 다른 B업체에서 한우 패티를 활용한 버거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한우 원료육 차액지원 사업은 급식·가공업체 중 올해 한우를 신규로 사용하거나, 최근 3년(2020~2022년) 연평균 사용량 대비 한우를 추가로 사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kg당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대그린푸드, 단체 급식 사업장에 한우 활용한 식단 제공

한우 뚝배기 불고기 등 제공



한우자조금은 지난 2월 13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인 (주)현대그린푸드와 '한우소비 촉진 및 한우산업 안정을 위한 ESG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그린푸드는 단체 급식 사업장에 한우 특식 메뉴를 제공하는 등 한우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에 있다.

특히 현대그린푸드는 지난 5월 9일 현대그룹 계열사에 4만5천식의 '한우 새싹삼 뚝배기 불고기'를 제공했다. 지난 5월 12일은 삼호중공업에서 6천식을, 지난 5월 26일은 현대중공업 글로벌R&D센터에서 2만2천식의 '한우 뚝배기 불고기'를 제공했다. 또 현대그린푸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SNS를 통해 한우를 홍보하는 한편, 소인형탈을 활용하여 급식사업장에서 한우 메뉴 홍보도 진행했다.

앞으로도 현대그린푸드는 한우를 활용해 자사의 건강식 브랜드인 '그리팅'의 신상품도 개발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4.

5.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에 농가 참여 몰려

모집 접수 하루 만에 선착순 조기 마감
사료 신뢰도 증가·농가 생산성 향상 기여

한우자조금이 지난 6월 12일부터 진행한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 참여농가 모집이 접수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한우자조금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사료성분 분석조사사업'은 한우농가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배합사료, TMR, TMF, 자가배합사료 등을 채취 후 검증된 인증기관을 통해 일반성분(조단백,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수분, 칼슘, 인, NDF, ADF)과 아미노산(stable계열, 황 함유계열 등) 중 원하는 성분의 함량 및 분석결과와의 차이를 파악하여 성분 미달에 의한 농가 피해를 방지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은 사료에 대한 농가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우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한우자조금은 한우농가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 하반기 2회 추가 모집을 통해 분석조사 실시할 계획이다. 추가 모집 시에는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한우 관련 카페, 밴드 등에 모집공고를 기재할 예정이다.



6.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과잉물량 시장격리 등 대책 마련 시급

올 하반기 한우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대책을 비롯해 한우수급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하고, 국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이 주최한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6월 2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선 한우산업 현황·전망과 올해 하반기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대책과 더불어 고질적인 한우 수급불안의 원인 분석, 대책 등 한우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분석과 실질적 대책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하반기에 한우 공급물량이 더욱 늘어남에 따라 한우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한우 시장격리 등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사료구매자금 지원확대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어기구 의원은 하반기 쏟아질 한우 물량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이목을 집중시켰다.



7. ‘방문형 OPU 수정란 생산체계 확립 및 산업화 연구’ 결과 발표

농장 생산성 향상 기대...향후 농가 환원 사업 추진 검토

경북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한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문형 OPU 수정란 생산체계 확립 및 산업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한우자조금은 기존의 체내수정란 생산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난포자극 방법을 이용하여 현장의 생체 난자 흡입(Ovum Pick Up, OPU) 수정란이식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난자 채취 방법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높은 품질의 수정란 생산체계를 구체화하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난소의 예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 난자회수율과 수정란 생산성을 고려한 공란우 선발 과정을 거쳐 후대축 성적과 유전능력평가 선발방법을 더하여 더욱 객관화된 공란우를 선발했다.

다음으로 시술자와 시술축의 안전을 고려한 공란우 전용 보정틀을 제작했고, 농가에서 손쉽게 활용수 있도록 클립, 이동식 보정틀을 활용했으며 공란우·수란우 전용 사양가이드를 제작해 농가에 대한 컨설팅 적용을 실시했다.

수정란 생산성 및 동결률 향상 연구에서는 기존 대비 약 30% 난자 회수율 증가 및 양질의 난자 회수의 결과를 보였으며, 생산 수정란 농가 공급의 수태율은 신선란 60.6%, 동결란 50.9%로 나타났다.

또 경상북도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실증 OPU 사업 추진을 통해 한우농가로부터 공여된 고능력 암소에서 최종 공란우 79두를 선발하여 1두당 평

균 16.3개 난자채취, 7.2개 수정란 생산, 생산효율 43.6%의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는 기존 본연구팀 OPU 방법 대비 생산효율이 약 12% 향상된 성적이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통계·연구·조사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수출 15억원·할인판매 50억원 등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의결

한우자조금은 지난 6월 27일 서울 서초동 소재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예비비 74억원을 한우수출지원 및 유통사판매지원사업 등으로 전용하는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2023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자조금 예비비 전용 방향성 안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한우수출지원사업에 15억원을 증액하고, 농협 한우 할인판매행사 50억원, 한우자조금 사무국 온라인 한우장터에 5억원 등을 추가 배정했다. 또 한우가치 재규명 및 기타 연구과제 운영에 1억원, 한우육포 제조를 위한 저등급 한우소비촉진사업에 3억원을 신규 전용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사항으로 제안된 ‘한우소비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간담회’를 7월 중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1박 2일로 진행키로 하고, 전국한우협회 임원 및 한우자조금 대의원 등 많은 한우지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들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우고기 유통동향

※ '21년 7월부터 매월 2회 고정 패널(식육포장처리업체 10개소, 대형마트 5개소, 식육판매장 30개소, 일반음식점 20개소)을 대상으로 조사한 분석 자료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량(판매량)

(단위 : kg, %)

구분	2022년 6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합계	합계	구이류	정육류	갈비	합계		
식육포장 처리업	849,796	1,197,949	216,136	509,326	285,299	1,010,761	+18.9	-15.6
대형마트	79,157	110,944	21,849	87,279	-	109,128	+37.9	-1.6
식육 판매장	11,712	8,787	2,312	4,491	2,268	9,071	-22.5	+3.2
일반 음식점	3,094	4,055	3,325	553	-	3,878	+25.3	-4.4

* 구이류 : 등심, 안심, 채끝, 특수부위 등

* 정육류 : 우둔, 앞다리, 양지, 사태 등

■ 재고량

(단위 : kg, %)

식육포장 처리업	2022년 6월	2023년 5월	2023년 6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합계	합계	안심	등심	채끝	갈비	정육류	합계		
재고량	243,968	210,747	15,022	2,554	10,718	53,890	116,600	217,784	-10.7	+3.3

*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재고량만 파악한 수치임

■ 유통가격

(단위 : 원/100g)

구분	구이류			정육류			갈비
	안심	등심	채끝	앞다리, 설도, 우둔	양지	목심	
식육포장 처리업	7,800	5,400	6,200	2,300	3,300	2,100	1,700
대형마트	10,549	7,263	-	2,901	4,772	-	-
식육판매장	-	11,700	-	4,600	4,860	-	5,580
일반음식점	-	16,953	-	8,583	-	-	25,000

* 거세 1등급 기준

■ 수입량

(단위 : 톤)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5월	2023년 6월	2023년 누계
냉장	119,379	103,030	9,590	8,217	50,238
냉동	333,433	373,724	34,783	29,390	187,756
합계	452,812	476,753	44,373	37,607	237,994

〈출처 :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우 수급시황

중장기 도축 마릿수 2024년까지 증가 전망

■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1년	2022년	2023년	
					6월	6월	5월	6월
도축두수(두)		762,746	794,234	871,577	60,949	64,617	79,128	68,662
경매두수(두)		410,849	429,890	533,494	33,184	37,302	44,957	41,226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7,772	21,169	19,018	21,737	19,644	15,490	15,558
	거세	21,241	22,667	20,980	23,971	17,817	18,105	18,462
	비거세	13,386	13,939	12,433	13,662	12,732	8,983	8,846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6,103	6,455	5,559	6,508	5,753	4,383	4,425
	송아지	암	3,415	3,629	2,735	3,849	2,994	2,129
		수	4,268	4,550	3,863	5,003	4,407	3,436
소매가격 (1등급/kg)	등심	97,830	102,980	105,530	101,700	105,230	91,990	94,420
	양지	60,140	62,980	59,900	82,630	59,630	53,260	53,800
	설도	47,330	49,500	45,430	59,360	45,590	39,160	42,040

* 전국경락가격 :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 수소(거세 포함) 출하대기 두수

구분	5월		6월
	출하대기 두수	실제출하 두수	출하대기 두수
두수(도축비율)	159,962	34,895(21.8%)	184,434

* 출하대기두수 : 전월 기준 27개월령 이상 수소

* 실제출하두수 : 전월 출하대기두수와 해당월 28개월령 이상 수소 두수의 차이

■ 사육두수 및 농장수

구분	전체 한우마릿수	전체 암소마릿수	가임암소수	전체 한우농장수
두수	3,536,336	2,232,499	1,666,516	85,616

* 가임암소 두수 : 15개월령 이상의 암소

■ 한우 도축 마릿수 전망

(단위 : 천마리, %)

2023년 한우 도축 마릿수는 출하 대기 물량 증가로
전년 대비 9% 증가 전망

◆2023년 도축 마릿수 : 94만5천 마리 전망

• 2023년 2분기 : 21만1천 마리(전년 대비 5.4% 증가)

• 2023년 3분기 이후 : 24만~27만 마리(전년 대비 3~14% 증가)

→ 3분기 거세우 출하 지연 물량 및 암소 도축 증가 예상

※한우 이력제 4월 말 사육 마릿수 기준 거세우 도축 가능 개체수(29개월령 이상)는 전년 대비 35.6% 증가

구분		한우 도축 마릿수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합계
2023년(A)		229.8	211.1	265.7	238.6	945.2
2022년(B)		204.0	200.2	232.9	232.0	869.1
과거 불황기	2011	141.6	166.8	213.9	196.0	718.3
	2012	210.8	177.4	250.8	203.9	842.9
	2013	243.3	211.0	262.1	243.4	959.8
증감률(A/B)		12.6	5.4	14.1	2.8	8.7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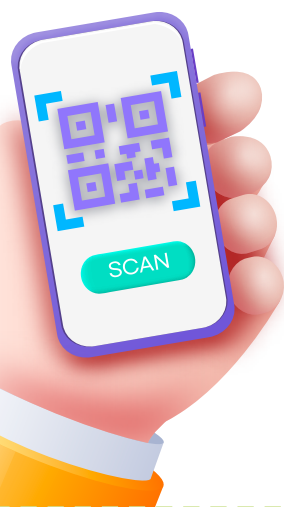


카드뉴스로 알아보는 우리 한우



카드뉴스 보러 바로가기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카드뉴스가 게
재돼 있는 한우자조
금 웹진으로 이동합
니다.



방문형 OPU 수정란 생산체계의 필요성



- 수정란 이식
- OPU-체외수정란
- 활용 방안
- 수정란의 종류
- 방문형 OPU 수정란 생산 과정
- 능가방문 OPU의 기대효과



2023년 2분기 한우관측보



- 한우관측보 발간목적
- 사육동향과 전망
- 도축동향과 전망
- 가격동향과 전망

한우가족상담소 Ep.1

한우농가 2세들의 고민 해결!

부모님과 함께 소^잘키우기



“이중 관계라서
참 힘들실 거예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소식지 주소를 스마트폰
또는 PC주소창에 입력
hanwoonews.com

스마트폰 카메라로
큐알코드 촬영하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 검색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소식지 배너 클릭
www.hanwooboard.or.kr

독자 Review

〈한우자조금〉에 보내주신 독자의 소리

[선도농가 탐방]
김○식 (청주시 청원구)

경기 양주 윤별목장 이상순 대표의 암소개량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축산에 입문한 지 10여년 만에 육종농가가 되었고 지금까지 보증씨수소 14두를 배출하였다고 하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과 고난이 있었을텐데, 그 순간을 다 이겨내고 지금의 결과를 일구워 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 집니다. 크게는 축산에 몸 담고 있고 작게는 축협의 직원이지만 나름 개량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에 개량을 전파 하고자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길 길이 멀었다고 느껴집니다. 좋은 기사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앞으로 축산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많이 담아 달라는 당부를 드리며 글을 맺겠습니다.

[선도농가 탐방]
사○소 (경남 창녕군)

6월에 실린 윤별 농장을 보면서 섬 없이 달려온 노력과 포기하지않은 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돈을벌기 위해 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한우를 잘 키우는 것에 답이 있음에 공감하면서 맛도 최고 가격도 최고인 우리한우가 품질로 더 인정받는 그날 까지 맘 올리겠습니다. 더운 여름 우리한우로 건강챙기도록 응원합니다.

[한우자조금이 만난 사람]
이○진 (충남 홍성군)

세계경제 위기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식량난과 함께 우리 한우농가에 까지 영향이 있어 힘들고 지치는 시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우농가는 항상 이러한 어려움을 끈기와 희망으로 극복해나가 왔기에, 지금은 더 나은 한우농가의 광명을 위해 힘을 응축하는거라 생각합니다. 뛰어난 품질의 우리 한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먹거리이고 더 나아가 K푸드의 미래먹거리이기에 한우자조금협회가 함께하는 우리 한우농가분들을 힘내시고, 이러한 번곡점에서 더욱 우리한우의 품질을 단단히하여, 승승장구하는 우리 한우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참여 방법

〈한우자조금〉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의 리뷰를 남겨 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웹진에 접속해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한우 선물세트 / 1명



한우 육포(50g) 10개 / 1명



한우 육포(15g) 10개 / 3명



농산물상품권(2만원) / 3명

응모기간 : 2023년 8월 7일(월) 까지
당첨자발표 : 2023년 8월호 소식지에 발표합니다.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월간한우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나호 당첨자

한우 선물세트	한우 육포(15g)	농산물상품권
김○식 (7119)	이○진 (3917)	최○진 (2175)
	홍○석 (5200)	이○길 (6499)
한우 육포(50g)	최 ○ (0045)	박○은 (2175)
사○소 (2175)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주세요!



한우자조금 소식지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오른쪽 큐알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채널 추가'를 눌러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소식지'를 입력하셔도 됩니다.

